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9 주

질그릇 안의 보배

2008년 1월 7일 ~ 1월 19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 470, 472, 453, 102, -, 153 (영 1206, 634, 639, 614, 117, 100, 201)

성경: 고린도후서 1:1-4, 18; 사도행전 12:1-19; 누가복음 10:38-42, 11:1-13, 33-36, 12:1-48

📖 고린도후서 1:1-4, 18

¹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²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³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¹⁸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 사도행전 12:1-19

¹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²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³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⁴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⁵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⁶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⁷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⁸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걸음을 입고 따라 오라 한대 ⁹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¹⁰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¹¹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¹² 깨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¹³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

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¹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¹⁵.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¹⁶.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¹⁷.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¹⁸.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¹⁹.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숫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 누가복음 10:38-42

³⁸.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³⁹.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⁴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⁴¹.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⁴².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1:1-13, 33-36

¹.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².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³.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⁵.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⁶.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⁷.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⁸.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⁹.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¹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¹¹.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¹².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¹³.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³³.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³⁴.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³⁵.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³⁶.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9 주 : 질그릇 안의 보배

☞ ☞ ☞ ☞ ☞ 월요일 ㉞ ㉞ ㉞ ㉞ ㉞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1:12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 고린도후서 2:4上

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

📖 고린도후서 1:8下

8. 형제들아 우리가 ...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 고린도후서 10:10

10.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서언 그리스도인의 수수께끼

1.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함

우리가 만일 고린도후서를 잘 읽었다면, 자연스럽게 이 책 안에 마치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은 바울 자신을 보고, 또 한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을 볼 것이다. 당신이 만일 1장 부터 13장까지를 계속하여 읽는다면, 그의 말이 한결같으며 모두 한 원칙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몇 마디로 바울이 이 책에서 제기한 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장에서 말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이다.

1장에서는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놓여 있음을 본다.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질그릇을 보여주며 또 한편으로는, 보배를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

실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질그릇은 보배의 빛을 막을 수 없으며 질그릇은 보배의 힘을 매장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함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릿 속에 하나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러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힘을 다하여 추구해 간다. 우리가 만일 이상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양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이상적인 표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만일 완전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루종일 웃어야만 한다. 만일 한 시라도 그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는 승리하지 않았으며 크게 실패했고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일 완전하다면, 반드시 그의 용기는 대단히 크고 어떤 일이든지 관계없이 무서워 하지 않으며, 어떤 일에 관계없이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가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워 한다면, 그는 믿음이 없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며 완전치 않다고 말하겠다.

이러한 것은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마땅히 조금도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만일 근심한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에게 많이 말할 필요가 없다. 형제 자매들 속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는다.

3. 그리스도인들은 천사와 같이 문제가 없어야 함

어느 날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나는 바울이 마음 속에 근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읽고 『바울도 근심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또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하는 것을 읽고 나는, 『바울도 울었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마음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읽고 나는, 『바울도 고생스러워 하고 고통스러워 했는가?』라고 물었다. 그가 환난을 너무 심하게 받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할 때 나는, 『바울도 절망하였는가?』라고 물었다. 더 읽어 내려 갈 때에 보게 된 많은 부분은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류의 천사가 아님을 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류의 천사를 땅에 놓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한 가지 보기 시작한 것은 바울은 우리에게서 아주 가까우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를 인식하며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다.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4:7**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고린도후서 12:9, 10下**

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력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장막을 치게) 하려 함이라

10. ...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없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머리 속에 하나의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기억할 것은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일 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도 그런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으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그릇을 만난다. 그러나 특별한 점은 바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보배는 질그릇을 감추며 이 보배는 질그릇 안으로부터 뚜렷이 드러난다. 이것을 기독교라고 부르며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두려워 하지만, 그러나 그는 또한 강하다. 그는 마음 속에 괴로워 하지만, 그러나 양망한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오히려 싸이지 않는다. 그는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여전히 버린바 되고 끊어진 바 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의 모양은 거꾸러 뜨림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고후 4:7-9). 그가 연약한 것을 보지만 그는 『내가 연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고 말한다(12:10下).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 것을 보지만 그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한다(4:10). 그는 약한 이름이 있지만, 또한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며 사람들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참되다. 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오히려 유명한 자이다. 그는 죽은 자 같으나 오히려 살았다. 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한다. 그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

요케 한다. 그는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6:8-10).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또한 진정한 기독교이다.

◆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모순이 있는 생명을 사는 것임

무엇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가? 이는 바로 그의 몸에 하나의 조화의 모순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 안에 오묘함을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이 모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질그릇이 없고 단지 보배만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만일 질그릇이 있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의 사상은 이 양극단 안에 있다. 모든 것이 보배이거나 모든 것이 이상적이기 쉽다. 또한 질그릇이 있다면 조금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질그릇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질그릇이 있으면 조금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할 필요가 없음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갈망하시는 것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기 바란다. 어떤 형제는 내게, 『나는 무슨 까닭에 이렇게 연약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연약함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으며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우리 안에 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꾸며서 이 질그릇을 수리하여 어떤 어조나 모양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당신의 질그릇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사도행전 12:12-15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

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질그릇을 개선하거나 고칠 필요가 없음

전에 교회는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베드로를 벗어나게 해주사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베드로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자 그들은, 『이것은 아마 베드로의 혼이 돌아 온 것이라』 고 말했다. 여러분은 보았는가? 이것이 믿음이며, 진실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믿음이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여전히 그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이 숨겨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의 믿음은 마리아나 마가의 그 식구들보다도 더 크려고 하여 매우 확신 있게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감옥의 문을 여실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마치 바람이 불자마자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고, 비가 때리자 또 한번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는 너무 믿었다. 그러나 결코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직히 말하거니와,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속임받는 그러한 무리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기독교는 질그릇이 없는 것이 아니며, 보배가 질그릇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알 것이다. 의심하는 것은 미워해야 하며, 그 의심은 죄이다. 질그릇으로부터 나온 것은 열납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질그릇이 아니며 보배를 질그릇 안에 넣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하고 확신이 있다고 느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 그 때가 의심할 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할 그때가 또한 마귀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를 돌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 믿음은 변할 수 없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배가 질그릇 안에서 항상 밝히 드러날 수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아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위는 사람이 한 것이며, 보배의 나타남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위장하는 것은 행위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확신할 그때에 도리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강할 그때에 도리어 나는 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용감할 그때에 도리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당신이 진실로 즐거울 그때에 동시에 여기에 일이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모순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음을 증명한다.

고린도후서 3:5

5.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4:10-11

10.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5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사람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떠한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은, 근심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없다는 것이고, 누물이 있으면 반드시 찬미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연약함은 반드시 능력이 없나는 것이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 묶인다는 것이며, 거꾸러뜨려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며, 의심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여기에서 큰 소리로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어떠한 경지에 일러 모든 인간에 속한 것들은 단지 보배를 숨긴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람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보배를 매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망을 만날 때마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나는 비록 어떤 것을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더욱 발게 드러날 것이며 더욱 좋고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고 의심하며 끝났다고 느낀다. 그러나 만일 믿음으로 나아온다면 비록 그런 의심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믿음은 보배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어둑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는 밝히 나타날 수 있다. 이 영적인 모순이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점이다. 이 영적인 모순 안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다. 바로 이 영적인 모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 **보배와 관련된 모든 것, 즉 영적이고, 강하며,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서 체현될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계속하여 이 길을 걸어 간다면, 당신은 더욱더 당신 안의 모순이 얼마나 큰가를 찾아낼 것이다. 당신 내면의 갈라진 부분, 그 격리된 심연을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보배의 나타남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지만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내를 주신 것을 좋게 본다. 그러나 본래 그 사람은 짐목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므로 지나치게 본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본래 머뭇거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나치게 보아 하나님이 그에게 겸손을 주셨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본래 천연적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보아 하나님이 그에게 온유함을 주셨다고 그를 너무 좋게 본다. 또 어떤 사람은 천연적으로 강한 자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봄으로 하나님의 능력기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너무 좋게 평가한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여기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질그릇은 어떤 종류의 질그릇이든 보배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며 질그릇으로 충만한 것이다. 모든 연약한 사람은 스스로, 『이 질그릇 안에는 흙으로 충만하며 나는 특별히 그릇이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적이고 강하고 엄한 것은 우리 몸에서 여전히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왜냐하면 보배는 이 질그릇 안에서 더욱더 밝게 빛날 것이며 더욱더 크게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리하다면 당신은 이 보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된다.

형제 자매들이여, 모든 문제는 적극적인 방면에 있다. 소극적인 것을 즈의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주님은 각 사람의 몸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다. 보배가 당신 몸에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알 것이다. (워치만 니, 「일곱 광주리 가독히 11」, 『보배와 질그릇』)

☞ ☞ ☞ ☞ ☞ **금요일 & 토요일**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4:7-11**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고

10.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
게 하려 함이라

11.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가?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생생했고 능력이 있었지만 또한
친절하며 겸손하고 인내가 있었다. 이 모든 미덕들은 그에 의해 체험된 그 영
의 나타남의 부분이었다. 그의 사역은 생명으로 그 안에 나타난 그 영의 사역
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명으로 충만했다. 생명은 그의 위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린도에 있는 믿는이들 안에서도 역사했다.

바울은 십자가의 죽임을 체험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었
다. 바울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반대나 핍박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그가 육체적으로 강하며 그의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 보자.
아마 이러한 경우였다면 바울 안에 나타났던 생명은 그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같이 있었을 때 그에게는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
었으며 반대와 핍박에 직면하고 있었다. 때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를 곤경에 처하게 했다. 바울은 만일 모든 것이 쉽고 용이하였다면 그와 같
은 생명의 나타남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안락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나타날 기회가 적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와 핍박과 비판을 받을 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합당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생명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8 절과 9절은 그가 처했던 각종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 『우리가 모든 방
면에서 괴롭힘을 당하여도 제약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
지 아니하고』.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네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로 그는 그들
이 각 방면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나 괴로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중국어 번역
판은 그들이 각 방면에서, 즉 전후좌우(前後左右)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로와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았다. 이것
은 생명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되지 않는 것은 곧 생명의 나타남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 길을 찾지 못했으나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 사도들은 문이 닫혀서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8절의 이 부분은 헬라어에 있는 말의 재치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바울은 나아갈 길이 없음을 말하고 그런 다음 나아갈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거듭 말하자면 이와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그들은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생명하신 그 영으로 인하여 그들은 나아갈 길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핍박을 받았으나 버린 바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적에 의해 추격을 받았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내버려지지 않았음을 말한다. 즉 악한 곤경에 내버려둔 채 잊혀지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으나 망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록 그들은 때려 눕힘을 당했으나 망하지 않았다.

바울은 괴로움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으며, 핍박을 받았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생명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긴다. 심지어 그가 괴로움과 당혹함과 핍박과 버린 바 됨을 체험했음지라도 바울은 여전히 매우 생생했다. 그는 제약받거나 실망하지 않았고 버린 바 되거나 망하지 않았다. 생명은 그 안에 참으로 나타났다. (위트니스 리, 고린도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31, 289~290쪽)

◆ 모든 방면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 기쁘게 느끼는가?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신다. 당신은 당신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때로 이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환경, 즉 전후좌우에서 공격받게 하는 환경 가운데로 집어 넣은 것 같아 보인다. 우리는 모든 길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은 생명의 나타남을 위한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공격하는 사람들과 각 방면에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사람은 아마 당신의 가족 중에 있을 것이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 당신의 자녀 혹은 당신의 친척이 당신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주님께 공흠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아마 가장 큰 공흠이 당신으로 하여금 생명의 나타남을 갖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상황 안에 있게 했다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同, 291~292쪽)

◆ 추구 자료 ◆

1. 위치만 니, 일곱 광주리 가득히 11권, 『보배와 질그릇』
2. 위트니스 리, 고린도후서 라이프-스타디, 메시지 31

제 3 부: GTA 권속 교통

1.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 의심과 진실한 믿음

어떤 형제는 내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기를 배웁니다. 이 믿음이 옳은 지 옳지 않은지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옳건 그르건 나는 관계치 않으며 나는 여전히 맞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의심하기 시작하여 또 기도하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걸어갈 때 길에서 또 의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이 의심하는 것은 조금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의심이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진실한 믿음은 의심 안에 둘 때 더욱 좋아보인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의심하라는 것으로 생각하여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사람의 질그릇과 하나님의 보배가 함께 있다는 데에 있다.

주: 위의 내용은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 위치만 니의 소책자 『질그릇 안의 보배』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힙니다.

2. 기도의 부담

1. 2008년 복음에 대한 부담이 성도들 가운데 활짝 피기를 기대하며 최근 구원 받은 성도들이 더 깊은 체험으로 말씀 안에서 풍성하고 확고하게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놀라운 주 예수에 대하여 더욱더 알기를 기도합니다.
2. 곧 시작될 Gr. 6의 복음을 위한 봉사자들을 주께서 더 공급하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3. 소식 및 안내

집회 안내

Hall 3 주일 집회 시간표

10:00am - 10:30am : 주의 만찬

10:30am - 11:00am : 다과와 친교 시간

11:00am - 12:00pm : 찬양 및 찬송과 메시지